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D-3

우리도 함께 씽~씽

부산 동호인들도 광주 원정 레이스

■ 부산 프로바이크

부산 자전거동호회에서도 이번 축제에 참가한다.

부산 프로바이크(Pro-Bike)팀 10명의 회원이 호남최대의 자전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면 원정길에 나선 것이다.

호남 최대 자전거 축제 참가

지난 2005년 창단한 프로바이크는 현재 1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부산지역 대표적인 자전거 동호회로 자리잡았다.

프로바이크 탄생에는 경륜선수 1기 출신

양희동씨가 중심에 있다. 바이크 삼을 운영

하는 양희동씨의 가게에서 평소 운동을 같

이하던 동료들이 모여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것

이다.

양희동씨는 “이번 광주·전남 자전거축제는 평소 알고지내던 광주지역 동호인의 소개로 참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양지역의 동호인들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주 라이딩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을 특별히 해내고 있다. 특히 박씨는 그간 많은 라이딩 경험을 통해 쌓은 부산·경남 근교 산악코스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매주 회원 라이딩을 이끌고 있으며 새 코스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말마다 80~100km 라이딩

추승용(59)씨도 임회 동기 남다르다. 지난 2005년 공사 종사로 다리를 다친 추씨는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지팡이에 의존하며 다니다 의사의 권유로 mtb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은 추씨는 이제 매일같이 50~70km의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곽상순(51)씨는 라이딩과 동시에 금연을 시작했고, 설영석(41)씨는 동호회 총무로서 회원들의 애경사를 빠뜨리지 않고 청



부산지역 대표적인 mtb동호회 부산 프로바이크팀이 광주원정에 나선다. 10명의 회원이 출전하는 프로바이크는 이번 대회가 양 지역 동호회간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는 ‘모임 살림꾼’이다.

이밖에도 부부회원도 5쌍이나 되며 이들은 같은 취미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가정의 모범사례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

기도 하다. 또 회원 중 매일 20km씩을 같이 운동하는 조동호(42)·조진석(40)씨는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화목함을 지난 부산 프로바이크의 광주 원정이 즐겁고 의미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안치홍 “거인사냥 내게 맡겨”

큰무대 체질 컨디션 굿… 세 번째 깜짝쇼 준비

괴물 루키 오타와 차세대 거포 대결도 관심



KIA 타이거즈의 ‘겁없는 신인’ 안치홍이 세 번째 깜짝쇼를 준비하고 있다.

2009 율스타전과 한국시리즈에서 ‘한방’을 터트리며 스타 탄생을 알렸던 신인 안치홍이 14일 열리는 한·일챔피언십을 새로운 무대로 삼았다.

KIA는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한 수 위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 안방에서 승부를 별이게 되는 요 미우리는 정에 멤버를 총 동원시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태세다.

클리어업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KIA 입장에서는 ‘미칠 선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KIA에서 내심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물은 안치홍이다.

나지완·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는 KIA의 핵심 공격루트지만 그만 끝난 상대의 견제도 심할 전망이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 그 역할을 안치홍이 맡게 된다.

안치홍은 프로야구 최고의 명승부로 남은 2009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을 장식하며 우승의 발판을 놓았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의 기록도 안치홍이 가지고 있다.

큰 무대 체질 안치홍에게 이번 한일대결은 설레는 무대다. 많은 이들이 안치홍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체질’ 때문이다. 유플라자, 한국시리즈 등 고참급 선수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무대에서 안치홍은 자신의 야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본인 스스로 큰 무대에 올라 경기를 하는 게 즐겁다고 할 정도로 감성장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물이 올랐다. 한국시리즈 당시 보여준 수준급 수비는 물론 한껏 달아오른 방향성이 안치홍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안치홍은 11일 흥백전이 끝난 후 “타격감도 좋고 이번 요 미우리와의 경기가 기다려진다”며 “이번 대회에서 큰 일을 해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카’로 투입되는 안치홍은 한·일의 미래를 놓고도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요미우리의 차세대 4번타자로 주목받고 있는 90년생 동갑내기 내야수 오타다이시가 안치홍의 상대다.

드래프트 1순위로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은 오타는 올 시즌 2군에서 주로 활약했지만 그 가능성은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188cm, 99kg의 건장한 체격과 타고난 파워로 이승엽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망주로 알려지면서 한국팬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하라 감독은 팀의 미래를 보고 이번 대회에 오타를 불러들였다.

팀의 승리와 앙립의 미래를 놓고 자존심 싸움에 나서게 되는 루키 안치홍에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몸이 어깨가 좋지 않아 전지훈련 조건에서 제외됐다. 또 한국시리즈 직전 부상을 당한 서제웅의 대체 선수로 물망에 올랐지만 끝내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끼지 못했다.

1차 지명으로 기대는 한 몸에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현장에는 있지 못했다. 이번 한·일챔피언십은 전태현에게 도처럼 찾아온 무대이자 기회다. 전태현이 ‘괜찮다’며 경기장을 뛰어다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면서 애써 태연한척을 한 전태현은 1군 선수단과 함께 이날 저녁 인천으로 출발했다. 고통의 정도는 전태현만이 알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태현 “한·일챔프전 꼭 뛰고 싶습니다”

연습 중 타구 맞아 발목 통증

“괜찮습니다” 애써 표정 관리

“저 일본입니다.”

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의 흥백전에서 가슴 치열한 장면이 나왔다.

6회말 투수 전태현이 안치홍의 강습타구에 오른쪽 발을 강타당했다. 전태현은 마운드에 주저앉았고 벤치에 있던 트

레이너와 코치들은 물론 타자 안치홍까지 놀란 표정으로 마운드로 달려 올라갔다.

그러나 고통스런 표정을 짓던 전태현은 금새 일어나 뛰다시피 마운드를 내려왔다. 상당히 강한 타구였지만 입으로 연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를 외치고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군산상고 출신의 전태현은 2008년 1차 지명으로 KIA의 유니폼을 기대주. 하지만 아직 전지훈련을 기본 적이 없다. 입단 첫 해는 전지훈련 직전 발등 부상을 당했고, 올해 역시

을 0.230, 12홀중 65타점을 기록하며 팀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KIA의 또 다른 FA 대상자 장성호는 구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와야수 장성호는 10일 구단과 1차 FA협상을 가진데 이어 11일 오후 구단 사무실에서 2차 협상을 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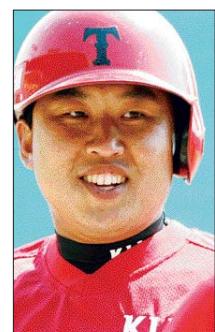
KIA는 우선 협상 마감시한인 12일까지 장성호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훈 FA 첫 계약… 몸값 10억2천5백만원

KIA 타이거즈의 김상훈이 올 시즌 자유계약(FA) 선수 중 처음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김상훈은 11일 오전 KIA와 계약금 8억원, 2010년 연봉 2억2천5백만원에



“시차 없고 이동거리 짧고 맞수 없네”

연아의 여유



그랑프리 우승 조건 갖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소프트프로그램(2분50초)과 프리스케이팅(4분10초)을 합쳐 7분 이내에 경기가 끝나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이다. 평소 훈련이 잘돼 있어도 경기 당일 컨디션과 심리 상태에 따라 꽂힐 수 있다.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19)가 저조한 성적으로 그랑프리 시리즈를 마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의미에서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한국시간 13~16일·레이크 플레이스)에 출전하는 김연아(19·고려대)는 우승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시차가 없다=김연아의 최고점은 지난달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세운 210.03점이다. 여자 싱글 선수로는 처음으로 ‘마의 200점대’를 뛰어넘어 210점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시즌 그랑프리 대회에 나선 경쟁 선수들은 마치 ‘동반 부진’을 악속이나 한 듯 170점대를 기록하면서 이동에 번거롭고 기숙사 형식으로 지어져 편안한 휴식과 물리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판단에 따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차가 없다=김연아의 최고점은 지난달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세운 210.03점이다. 여자 싱글 선수로는 처음으로 ‘마의 200점대’를 뛰어넘어 210점대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4차례 그랑프리 대회에서 김연아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스즈키 아키코(일본)가 기록한 176.66점이었다.

이번 대회 여자 싱글에 나서는 선수들 가운데 수구리가 역대 최고점 182.08점으로 ‘김연아 대항마’로 꼽히지만 지난 3 차 대회에서는 145.99점에 머물렀다.

또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한 사샤 코헨(미국)을 대신해 출전하는 에밀리 휴즈(미국) 역시 역대 최고점 166.60점에 그쳤고, 지난 시즌 4차 대회에서는 115.48점밖에 얻지 못하는 등 사실상 김연아의 경쟁자가 없다는 게 종론이다. /연합뉴스

이치로 9년 연속 황금장갑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매리너스)가 9년 연속 ‘황금 장갑’의 주인공이 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1일(한국시간) 이치로와 토리 헨티(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가 9년 연속으로 아메리칸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수

상했다고 밝혔다.

골드글러브는 양 리그의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수비실력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200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치로는 정교한 타격 솜씨를 비롯해 강한 어깨와 폭넓은 수비를 자랑해 왔다.

이치로는 2001년부터 9년 동안 24개의 실책 밖에 범하지 않았다. 올해도 145경기에 출장해 단 4개의 실책만 기록했으며 타율 0.352를 때웠다. /연합뉴스